

지역 맞춤형 청년 주거 정책 추진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2025.4.30.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주거복지팀
2025.4.3.
2025.4.24.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2025.4.14.

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50호 매입 착수

대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150호 확보에 나섰다.

매입 대상은 전용 80㎡ 이하의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역세권 및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된다. 시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 조건을 제시한 뒤, 매도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는 '청년형'과 시세 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형'으로 구분되며,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재정지원을 맡아 월세 부담을 낮췄다.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 진도에서 시작하여 각 군으로 확산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로 거주 기회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진도에서 첫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진도군에 들어서는 이번 주택은 3,442㎡ 부지에 14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으로 설계되었으며, 총 6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180억 원 중 전라남도가 150억 원, 진도군이 3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차 사업지로 고흥, 보성, 진도, 신안 등 4개 군에 총 210호를 선정할 데 이어, 지난 4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곡성, 장흥, 강진, 영암을 2차 사업지로 추가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에는 각 50호씩 총 200호가 2028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2035년까지 도내 16개 군에 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총 1,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제공한다.

강원도, 지역 맞춤형 청년 공공주택 홍천에서 두 번째 착공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영월 덕포지구에 이어 홍천 북방지구에서 두 번째로 착공에 들어갔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전국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LH 임대주택의 경우 타당성 분석 등 행정절차에만 4, 5년이 소요되는 반면, 강원형 공공주택은 사업 선정 직후 바로 착수할 수 있어 주거 수요층에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홍천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배치도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2025.4.15). 강원형 공공주택, 홍천에서 두 번째 착공...청년 정착 위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보도자료].